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행정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 367-3000

제1814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8월 21일 (음력 7월 21일) 목요일

대인시장 점포 30곳 임대 '예술인 공방 거리' 만든다

문화수도 7대 문화권 조성사업 확정

경기 침체로 활력을 잃고 있는 대인시장이 문화수도를 대표하는 '예술인의 거리'로 변모한다.

〈관련기사 3면〉

2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광주문화수도 7대 문화권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대인시장 예술인 공방거리 조성사업(공방거리 조성사업)'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문화수도 조성사업과 맞물려 광주지역을 권역별로 특화함으로써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공방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전당을 축으로 한 문화전당권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은 올 말께 완료될 예정이며, 전체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완료 시기는 2023년이다.

7대 문화권은 ▲문화전당권(문화전당·동구) ▲아시아 문화교류권(사직·양림동) ▲아시아 신과학권(광산구 비아동) ▲아시아 전승문화권(남구 대촌·칠석동) ▲문화경관·생태환경 보존권(무등산·영산강) ▲교육문화권(서구 마륵동) ▲시각미디어문화권(북구 중외공원 일대)이다.

추진단은 우선 대인시장을 예술인 공방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장 점포 30곳을 임대한 뒤 예술인들에게 무료 제공해 창작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현재 대상 점포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광주에서 재래시장을 임시 전시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는 있지만 작가들이 상인들과 함께 하는 입주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진단은 대인시장이 작가들의 창작, 작품 판매활동 주무대로 자리매김됨으로써 시민들의 친숙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또 예술인 공방거리 활성화를 위해 입주 작가들에게 창작 지원금과 전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입주 대상은 공예, 회화, 디자인 등 전 예술 부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다. 입주 작가들은 추진단이 제공하는 임대 점포를 자신의 예술적 취향에 맞춰 작업실로 꾸미는 등 창작의 산실로 조성한다.

추진단은 이와함께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 북카페와 휴게공간도 만들 계획이다.

추진단은 첫 사업인 대인시장 공방거리 조성사업을 향후 '동구 예술의 거리'까지 확대해 이 일대를 문화수도를 대표하는 예술인 공방거리로 조성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대인시장이 문화전당과 가까운 곳에 있는 데다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문화·예술을 시장에 접목해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문화수도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지를 이곳으로 정했다. 광주 서민 삶의 원형이 남아있는 유서깊은 곳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관계자는 "문화·예술을 통해 침체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대인시장은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맞춰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문화의 씨앗이 뿌려지는 첫번째 장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야구 "이젠 전승 금메달" 20일 베이징 우커송야구장 메인필드에서 열린 올림픽야구 한국-네덜란드전에서 8회 10-0 콜드게임 승을 거둔 한국 대표팀이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金10·10위' 스퍼트

오늘부터 태권도 금맥 캔다

국가별 메달 순위 〈20일 21시 30분 현재〉

순위	국가				합계
1	중국	44	14	19	77
2	미국	26	26	27	79
3	영국	16	10	10	36
4	러시아	12	14	18	44
5	호주	11	12	12	35
6	독일	11	8	9	28
7	대한민국	8	10	6	24

오늘의 빅매치 (21일) 〈한국시각〉

- **태권도** 57㎏급 임수정 (오전 10시) 68㎏급 손태진 (12시)
- **핸드볼** 여자 준결승 한국-노르웨이 (오후 7시)
- **근대 5종** 이춘헌, 남동훈 출전 (오전 9시 30분)
- **육상** 여자 경보 50㎞ 김미정 출전 (밤 9시)

2008 베이징올림픽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10-10'(금메달 10개 이상으로 종합 순위 10위 이내 성적) 목표 달성을 위한 막판 스퍼트가 시작됐다. 〈관련기사 18·19면〉

한국은 21일 태권도 임수정(여·57㎏급· 오전 10시·이하 한국시각), 손태진(68㎏급·12시)을 시작으로 22일 황경선(여·67㎏급·오전 10시), 23일 차동민(80㎏이상급·12시)이 차례로 금메달에 도전한다.

4강에 진출한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21일 오후 7시 2006년 유럽선수권 우승과 2007년 준우승을 차지한 강적 노르웨이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4강에 오르면 지더라도 동메달을 준다는 규정에 따라 최소 동메달을 확보한 복싱 웰터급(69㎏) 김정주(27·원주시청)는 22일 베이징 노동자체육관에서 바키트 사르세크바예프(27·카자흐스탄)와 결승 진출을 놓고 한 판 대결을 벌인다.

한편 한국 야구대표팀은 20일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본선 풀리그 네덜란드전에서 10-0, 8회 콜드게임승을 거두며 7전 전승, 1위로 준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노린다. 야구 대표팀은 22일 예선리그 4위 팀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암학원 창립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탄력 받는 J프로젝트

그동안 환경문제 등으로 발목이 잡혔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이 F1(포뮬러원) 특별법 국회 재발의와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 마무리로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 등 79명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을 재발의했다.

또 환경부도 이날 골프장 5개 축소, 철새 서식지 및 습지조성 등 환경보호 부문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을 승인, 문광부로 넘겼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J프로젝트 사업시행 개발주체인 6개 특수목적법인(SPC) 가운데 서남해안레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썬카운티㈜ 등 3개 SPC가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J프로젝트 삼호·구성·초성지구(51.57㎢) 개발계획 승인신청'과 관련,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을 문광부에 통보했다. 지난 2월 사전 환경성 검토가 시작된 이후 무려 6개월여만이다.

환경부는 협의 의견을 통해 삼호지구 예정지의 경우 철새보호지 확보를 위해 영암호와 금호호를 중심으로 녹지 및 유보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구성지구는 영암호 방향으로 수로를 포함해 폭 1㎞ 내외의 철새서식지 및 습지를 조성토록 했으며, 초성지구 역시 철새 서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테마파크 예정부지 내에 유보지 또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환경부와 전남도, 3개 SPC는 이와 관련, 철새 서식지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의 J프로젝트 개발계획에서 조성키로 했던 22곳의 골프장 가운데 5곳을 줄이는 방안에 협의했다.

이에 따라 3개 SPC는 조만간 골프장을 당초 22곳에서 17곳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 수정용역을 실시, 다음달 초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수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F1특별법 국회 재발의 환경성 검토도 마무리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폐지

지방 임대사업 조건 완화 … 신도시 검단·오산 개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개 지역을 신도시로 추가 지정 개발하기로 했다.

이미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의 690만㎡가 추가로 지정되고 오산 세교지구 520만㎡도 신도시로 새로 개발된다.

20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2개 지역을 신도시로 추가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을 1~7년으로 완화해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한 일부 중대형 주택은 입주 전에 팔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분양을 줄이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이 2조-3조원 가량을 투입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을 공정률 80% 이후 분양하도록 제한한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 된다.

정부는 또 지방 주택에 한해 매입임대사업의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군·구에 소재한 5가구 이상을 임대해야 하지만 정부는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5가구를 1가구로 줄이고, 거주지역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